

본조사는 시작도 못했다...언제까지 자료 정리만

5·18진상조사위 1년 활동 평가

기간 연장·증원 등 몸집만 불러

1년 되도록 조사보고서 못 내놔

58건 사건 접수 됐지만 결과 없어

향후 조사활동도 구체화 못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완의 5·18 과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물론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5·18진상조사위는 최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2020년 하반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에 이은 2번째 보고서이다. 하지만 두차례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애초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까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및 관련내용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관련자 조사보고서 ▲1980년 당시 북한군 관련 정보 및 한반도 안보상황, 한미연합사와 정보기관 등의 관련 기록 조사보고서 ▲5·18 당시 남파간첩사사 기록 등 관련 대공기록 조사보고서 ▲5·18당시 지역 계엄군, 보안사 등 군과 중앙정보부 지부 및 전남경찰관계 조사보고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 등 조사보고서 ▲북한군 교범,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자료 조사보고서 ▲전남 일대 무기고 폐쇄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년이 되도록 조사보고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성과 및 향후 과제에서 5·18 관련 자료 소장현황 및 형태를 탐색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고 확보한 자료를 진상규명 조사과제와 관련하여 정리·분석하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울초에 마무리 됐어야 했다.

당초 계획에는 1년차에 조사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모든 사전조사를 마무리 지어 2년차에 본 조사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2년차에 들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 1년차 안에 피해자 및 목격자(또는 내부고발자) 중심으로 청문회까지 실시하는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5·18진상조사위는 기존 7개(▲최초 발표와 집단 발표 책임자 및 경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전남 일원무기고 폐쇄사건)였던 직권조사 사항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인피해자 현황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계엄군에 의한 송안동 및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등 5개를 추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 총 17건의 신청사건에 41건이 추가돼 총 58건의 신청사건이 접수 됐을 뿐, 조사결과를 내놓을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군 침입설을 주장한 책자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 '60km를 5시간만에 도보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 게 전부였다.

이번 활동보고서에는 향후 조사 일정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발표된 보고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연말 '5·18민주화운동 진

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5·18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1년 1회 연장→1년씩 2회 연장)과 인원(50명→70명)이 늘어 활동 범위가 확대돼 실제적 진실 규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하지만 늘어난 외형에 비해 뚜렷한 활동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외형만 늘리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전문위원의 활동결과 '5·18민주화운동 여성 진로기록 분류 및 정리, 여성보상신청자 전수',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조사 지원,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해외사례 정리조사', '5·18 당시 무기고 탈취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을 보면 기존자료 정리·분석을 하는 수준의 활동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진상조사위가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위해 대국민 언론홍보에 주력했다고 활동보고서에 밝히고 있지만, 실제 5·18진상조사위는 10개 정도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이다.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도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이 대부분이고 5·18진상조사에 관련된 보도자료는 지난해 11월 분묘개장 및 유전자 시료채취가 유일해 모든 활동을 공개한다는 '공개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13개 기관으로부터 3500여건의 문서와 2테라바이트(TB) 상당의 전자파일 확보했다고 하지만 유의미한 자료 목록조차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 대외협력관은 "제보가 끊기는 등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공개가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서 "이번 활동보고서 공개를 기점으로 조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백기완 선생 빈소 찾아 직접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술 한 잔을 올린 뒤 절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법기도 했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활활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인의 장녀인 백인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

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기완 선생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폰으로 시청했는데 영상에는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육성시 담겼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영상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남긴 하얀 손수건과 저서 1권을 선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송선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육 장관·박지원 국정원장 재직때 5·18 진상규명 속도내야

국정원 자료 79건 5646쪽 적극 제공

박지원 "공개 외면하면 역사의 죄인"

국방부 조사지원단 27명도 맹활약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지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어 80년 5월의 실제적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불고 있다.

우선 국정원은 지난 9일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1669쪽 분량의 자료 16건을 전달했다. 국정원이 제공한 기록물은 지난 80년 당시 국정원의 점수인 중앙정보부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 364쪽과 중앙정보부 본부와 해외 주재관이 주고받은 전 문 1009쪽, 관련자 조사 내용 296쪽 등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국정원이 5·18 진상조사위에 제공한 자료는 총 79건으로, 문서 5646쪽과 영상자료 1건, 사진 파일 1건 등이다.

이처럼 국정원이 과거와 달리 5·18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데는 박지원 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진도 출신의 박 원장은 지난해 5·18 진상조사위 관계자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정원 간부들을 참석시키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 내부에 있는 5·18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대 교체가 이뤄진 국정원 내부에서도 5·18 관련 자료가 있다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5·18 진상 규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당장 국방부의 5·18 진상조사지원단은 전문적인 군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5·18의 실체를 밝히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현역 군인으로 군 작전과 명령 계통에 정통한 이들은 각종 5·18 관련

자료는 찾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진상조사위 고위 관계자는 "27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지원단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는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80년 당시 보안사)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과거와는 달리 국방부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광주 출신의 서육 국방부장관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80년 당시 광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박지원 원장과 서육 장관이 있을 때 5·18 진상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부 추가모집 ▶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인문사회	신	학	○
	한	국어교육학과	○
	복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교육상담학 전공)	○
사범	유	아교육과	○
예능	음	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2. 22(월)~24(수) · 전형 일: 2021. 2. 25(목)

대학원 추가모집 ▶ 입학문의 대학원 605-1115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2. 15(월)~19(금)
· 전형 일: 2021. 2. 22(월)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